

웁살라에 다녀와서

서울을 떠날 때부터 모든 절차가 순조롭지 못했다. 여권에 홍콩 경유를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하네다 비행장에서 잠시 옥신각신해서 겨우 홍콩에 도착했다. 하루 지나 예정된 B.O.A.C. 비행기를 타려고 하니 매마침 비행기 회사의 파업 때문에 하루 더 연장할 수 밖에 없었다. 우리 나라 여행사의 실수 때문에 뜻하지 않은 낭패를 당한 셈이었다.

7월 8일 겨우 루프트한자로 바꿔 타고 강행군을 해야만 했다.

카라치, 카이로, 로마를 거쳐 웁살라에 도착한 것도 회의가 이미 시작하지 사흘이나 지난 후였다.

고 하마름술드의 고향인 웁살라는 스톡홀름에서 약 40킬로 북쪽에 있는 조그마한 대학촌, 인구가 10만인데 학생이 2만이나 된다. 차분하고 안정된 마을이었다.

세계 교회 역사상 획기적인 대집회가 이 스웨덴의 대학촌에서 열렸기 때문인지 온 마을이 축제 기분에 가득 차 있었다. 대표들은 대개 웁살라 대학 남녀 기숙사에 숙소를 잡은 것이다. 기숙사도 초현대식으로 건축된 것이었다. 창문마다 셰이드가 되어 있어서 밤 12시면 저녁 노을이 보이고 새벽 3시에 날이 밝아 오는 곳이었다.

이번 대회의 토의 내용은 과거의 일정한 범위 안에서 신학자나 전문가들이 독점해 왔던 에큐메니칼 운동에 비해 인간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인간의 본성, 즉 인간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긴박한 문

제가 다루어졌다.

인간에 대한 기독교적인 견해가 무엇일까? 이 근본 문제가 교회와 사회, 신앙과 직제, 선교와 전도 문제의 공통된 의제가 되었다. 적어도 앞으로 3년 동안 이 기독교적 인간관을 연구할 전문가를 임명하자는 제안마저 나왔다. 빈부의 문제도 따지고 보면 인간 문제에 귀착된다. 그래서 제 4차 총회의 메시지 속에도 이런 귀절이 있다. “모든 인간은 서로 이웃이다. 분열과 차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인간으로서 서로 함께 살 수가 있을까? 우리는 이에 대해서 아무런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그리스도는 교회가 새로운 인간 공동체를 예견하도록 바라신다……. 인간은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문화가 복지 사회를 건설한다 해도 인간 문제는 여전히 하나의 기본 문제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이번 대회 기간 동안 대회 분위기를 긴박하게 만든 것은 비아프라와 나이지리아 전쟁 때문에 빚어지는 처사였다. 포위를 당한 비아프라에서는 매일 굶어 죽는 아이가 3천명이나 된다는 소식에 모두들 가슴을 조이고 있었다. 유진 블레이크 총무는 긴급 동의를 제출해서 3백만 불의 긴급 원조금을 조달하라고 하였다. 이 돈으로 비행기를 전세하여서 식량을 속히 운반하자는 것이었다. 신앙과 인종, 이념의 차별을 넘어서 구호의 손을 뻗치는 것도 역시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W. C. C.의 본연의 외침이었다.

7월 14일 주일에도 스톡홀름 대성당 뒤 광장에서 야외 예배를 가졌다. 반지하 광장인 위에서는 시민들이 구경하고 있었다. 회의

순서에는 청년 대표들이 질문을 낭독하는 순서가 끼어 있었다.

청년 대표들의 질문에는

“우리가 W. C. C. 안에 통일을 어떻게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왜 모두 형제와 같이 함께 지낼 수가 없게 되었습니까? 빈 손으로 가난에 지친 사람들과 어떻게 서로 나누어 가지는 정의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왜 평화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할 수 없는가요? 월남, 남아프리카 등지에 평화를 가져와야 하지 않습니까? 남에게 복음을 알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은 청년들의 입을 빌어서 부르짖는 전체의 질문일지도 모른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주목을 끈 사건은 가난한 나라와 부유한 나라 사이에 있는 빈부의 차별을 어떻게 교회가 해소할 수 있는가를 다룬 일이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교수인 바바라 워드(Barbara Ward) 여사는 여자답게도 선진 국가들의 총 생산액의 십일조를 거두어서 후진 국가의 경제 발전을 돕는 일에 무조건 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제안은 지난 1966년 제네바에서 열린 교회와 사회 위원회에서 여사가 제안한 것을 되풀이 한 것이다. 세계의 재물의 3분지 2를 대서양 국가 인구가 독점하고 있고 나머지 3분지 1을 후진 국가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빈부의 불균형이 모든 차별과 부패, 그리고 혁명과 전쟁의 악순환의 원인이 된다고 갈파한 그 여사의 명찰은 가장 용기있고 도전적인 연설이었다.